04

특별기고

사회적 은행으로서 사회연대신협[1] 추진방안

이상진(Lee, Sang Jin)
한국사회혁신금융 주식회사 대표이사
sjlee@ksifinance.com

사회적경제기업은 양적, 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 자금이 크게 늘었으나 민간 자금의 유입은 제자리걸음이다. 시중 은행들은 사회적 금융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은 영세하여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자금 문제를 자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신협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타 단위신협과 차별화된 운영 원칙과 역할을 정의하고, 사회적 경제와 연대를 통한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신협으로 출발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은행으로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본다.

키워드 : 사회적 은행, 사회적 금융, 신용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1) 사회적 경제조직 및 종사자들이 조합원인 단위 신협으로 사회적 경제 발전과 사회 가치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공동유대범위로 하는 단체신협을 설립하기 위해 발기인 조합(http://cu.ksenet.org)이 구성되어 설립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1. 사회연대신협 필요성

1) 사회적 경제 성장

토마스 피케티는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고 했다.[2] 자산가, 높은 임금의 전문직과 소상공인, 저임금의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양극화는 세대 간(청년 vs 기성세대), 지역 간(수도권 vs 지역) 사회적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으면서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듯하다.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서비스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캐나다 퀘벡, 스페인 바스크 등 사회연대경제가 발전된 지역에서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고통받은 이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자주적인 조직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했다. 이후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기업도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영역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기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졌다.

국내 사회적 경제는 정부 정책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증사회적기업 2,908개소(2021.6.), 예비 사회적기업 2,642개소(2021.6.)[3], 일반협동조합 17,560개소, 사회적협동조합 2,993개소, 협동조합연합회 110개소(2021.5.)[4], 마을기업 1,556개소(2020.10.)[5], 소셜벤처 1,509개소(2020.8.)[6], 자활기업 1,062개소 (2020.12.)[7]로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30,000여 개에 달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 지정 및 설립이 매년 3~17%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도 매년 17~30% 성장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신협, 생협, 농협, 수협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영역에서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2)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과 금융기관의 한계

금융 시장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 금융이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2018년 2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기

2)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장경덕, 유엔제이 옮김),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2014.
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ompany.do?m_cd=D003)
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www.coop.go.kr/COOP/state/majorStatistics1.do)
5) 마을기업 지정현황에 관한 기사(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214)
6)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기술보증기금, 21.2.17.)
7) 한국자활복지개발원(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214)

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공공부문을 위주로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실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공공부문 자금공급목표는 2019년 3,230억 원, 2020년 4,275억 원, 2021년에는 5,16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8]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사회적 경제 자금공급 목표를 정하고, 사회적 금융협의회를 통해 분기별로 집행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혹은 자산을 가진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용이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책자금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충분히 해결하긴 어렵다. 더욱이 정책자금은 정책 방향에 따라 매년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자금공급처로서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사회적 경제 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어야 한다.

2018~2019년 사회적경제에 100억 원 이상 대출을 했던 13개 시중은행의 자산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3,000조 원으로 정책자금 운용기관의 25배 이상이다. 만약 시중은행이 사회적 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사회적 경제의 자금 유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2020년 9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잔액은 1조 1,213억 원으로 2019년 말(8,498억 원) 대비 2,715억 원(+31.95%) 증가하였다. 기업유형별 대출 비중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이 8,810억 원(78.6%)으로 대부분이며, 협동조합 2,138억 원(19.1%), 마을기업 209억 원(1.9%), 자활기업 57억(0.5%) 순이다. 사회적기업 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2,515억 원)하였다.

【표 1】 시중은행 사회적 경제 자금공급 실적 (단위 : 건, 억 원, %)

구분	2019년 말			2020년 9월말			증감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증감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4,284	6,295	(74.1)	5,767	8,810	(78.6)	2,515	(39.9)
협동조합	987	2,020	(23.8)	1,460	2,138	(19.1)	118	(5.8)
마을기업	212	145	(1.7)	307	209	(1.9)	64	(44.1)
자활기업*	87	38	(0.4)	140	57	(0.5)	19	(49.4)
소계	5,570	8,498	(100.0)	7,674	11,213	(100.0)	2,715	(32.0)

〈자료출처 : 관계부처 합동('21.4.21.), 「21년 제1차 사회적 금융협의회 자료」〉

8) 관계부처 합동('20.12.8.), 「20년 제3차 사회적 금융협의회 자료」, 관계부처 합동('19.11.7.), 「19년 제3차 사회적 금융협의회 자료」, 관계부처 합동('18.12.12.), 「18년 제3차 사회적 금융협의회 자료」

하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대부분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하거나 부동산 담보대출과 연계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사회적경제기업에게는 문턱이 높다. 이들이 사회적 금융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다. 가령, 전문 심사역 양성, 담당 직원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 검증된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 효과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예금 및 대출 고객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시중 은행을 움직일만한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은행의 총자산 대비 사회적 경제 자금공급액은 0.04%로서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에는 어렵다. 이는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운용기관의 10~15% 수준으로 훨씬 소극적이다.

신협도 사회적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2021년 4월 879여 개 조합 중 전국의 71개 신협을 사회적금융 거점신협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453억 원을 신규대출을 취급하였으며, 2020년 말 대출 잔액이 689억 원에 달한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협은 조합원인 지역 주민을 위해 자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마냥 우호적일 수는 없다.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인터뷰[10] 결과, 사회적 경제에 이해가 높은 신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평했다. 혹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기존 대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실적을 쌓기 위해 신규대출을 늘리고자 했다. 실제 거점 신협과 사회적 경제를 위해 여러 차례 협력을 제안했으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지역도 있었다.

3) 기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한계와 사회연대신협의 필요성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재무제표 등 기업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대표자가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견제할 내부통제 시스템이 없어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 불균형이 심하면 기업 외부에 있는 투자자나 금융기관은 기업의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공급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거절,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 등은 중소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한 예외일 순 없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주로 관계금융에 의존하게 된다. 관계금융은 거래금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신용등급이나 담보, 재무제표와 같은 계량적인 경성정보(Hard information)보다는 기업가의 성품이나 평판 등 은행이 기업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파악한 연성정보(Soft information)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금융방식이다. 기업이 특정 은행과

9) 2021년 사회적금융 비전 토론회 자료 중에서
10)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 및 전문가 43명 인터뷰(2020.9. ~ 2020.11.)

긴밀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사적 정보를 취득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기업정보들을 은행에 제공하고 은행도 거래를 통하여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여 축적하게 된다. 은행이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정보를 보유하고 그 기업을 잘 이해한다면 보다 우호적인 조건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관계금융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미 사회적 경제에는 사회적 금융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이 있다. 그동안 사회연대은행(2003년)은 650억 원, 신나는조합(2004년)은 330억 이상 대출을 실행해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조기금을 운영하는 기관 중에서 재단법인 밴드는 240억, 한국사회혁신금융은 145억 이상의 자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해 왔다. 전국주민협동연합회는 전국 40여개 자활공제기금의 연합회로 자활근로자,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19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했다. 오랜 기간 많은 경험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민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고, 공공의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정책자금이 사회적 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비하다. 시중은행은 연성정보 축적을 통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여전히 보증 및 담보에 기반하여 제한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조적으로 자본을 축적하고, 예금통화 창출을 통해 자금공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에 특화된 단체신협이 필요하다.

2. 사회연대신협의 운영 원칙

사회경제연대가 발전한 캐나다 퀘벡에는 사회연대경제에 특화된 신협이 존재한다. 데자르뎅 연대경제금고 (https://caissesolidaire.coop/)[11]는 데자르뎅그룹의 회원조직으로, 집단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연대를 실현하는 신협이다. 이들은 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②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홍보, ③ 사회적 금융을 통한 사회변화를 미션으로 하고 있다. 자산은 1조 4천 6백억 원이며 전체 여신 중에 사회적 경제 기업 대출이 76%이고, 그중에 주택협동조합 비중 37%이다. 대출 심사 시 결사체, 사업 비전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사회적 가치, 지속성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지역적 기반이 아닌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적 기반에서 탄생했다. 일반기업과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자금지원을

11) 퀘벡 협동조합 연수보고서 (신협서울협의회 퀘벡연수단, 2015년)

수행 중이다. 2015년 기준, 노동자 630명, 협동조합 669개, 비영리조직 1,137개, 문화조직(문화 NGO, 박물관 등) 등 집단적 기업 2,796개, 일반기업 244개, 개인 11,754명을 포함하는 조합원 14,794명을 보유하고 있다. 직원은 100명 수준이며, 이사회는 선출직 15명으로 전원 무보수로 자원봉사한다.

사회연대신협은 데자르뎅 연대경제금고와 같이 연대와 협동에 기반한 사회적 금융을 통해 사회적 경제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사회적경제에 의한, 사회적경제를 위한 은행을 지향하며 5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경제기업 및 종사자의 믿음직한 금융파트너가 된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사회적 경제와 협동과 연대를 실현한다. 소유 구조, 의사결정 구조, 운영체계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균형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되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들은 사회적 경제와 협동과 연대를 통해 해결한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 가령, 수도권에서 예치되는 절대적인 금액이 많더라도 지역이 차지하는 예금 비중보다 대출 비중이 더 높게 유지한다면 지역에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중요한 영업권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에서도 고려될 것이다.

넷째, 조합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다양한 소위원회, 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한다. 일부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과 더불어 성장한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3. 사회연대신협의 차별점

1) 개인금융보다는 기업금융에 집중한다

신협은 서민금융기관으로 개인 대출 비중이 높다. 반면, 사회연대신협은 기업금융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가 성장하려면 사회적경제기업이 규모화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이익과 종사자 소득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늘어나는 여유자금이 다시 예금으로 유입된다면 기업에 재투자가 늘어나면서 자금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여수신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가령,

①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조합원이 많은 협동조합에 특화된 예금상품을 통해 재원을 늘리고, 건강 증진 및 좋은 먹거리를 위한 기업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②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보증을 기반으로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③ 대출한도거래(마이너스통장), 자금관리시스템 등을 제공하여 기업 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조합원 확대 및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알맞은 퇴직연금, 영업배상보험 등 공제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신협중앙회는 다양한 공제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의 경영환경, 영업행태 등을 고려한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조합에게 비이자수익을 증대시키는 귀중한 수익원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이 추진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금융**을 강화한다. 여러 사회적경제기업, 개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산화 프로젝트, 주거 빈곤층에게 시장가격보다 적은 가격으로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주택 프로젝트, 택시노동자들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해결하고자 택시회사를 인수하는 노동자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조합 입장에서는 거액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발굴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높은 예대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관리역량을 강화시킨다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 복합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인민금고가 금융과 창업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등)을 집중적으로 성장시켰기 때문이다. 몬드라곤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노동인민금고는 총자산 32조 원으로 스페인에서는 3번째로 큰 신협인 라보랄 쿠차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연대신협도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인재육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몬드라곤의 기업국처럼 기업육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는 핵심 기업들을 고객으로 유지하게끔 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기업의 상환 가능성을 높이거나 위험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험관리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상생협력대출을 수행하는 71개 거점신협, 중앙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동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기업 육성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신협들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사회적 경제와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첫째, 당사자 자조기금, 임팩트 투자펀드, 사회보상채권(SIB), 지역기금, 크라우드펀딩, 마이크

로크레딧 등을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12]**들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기업과 정보 비대칭성 해소, 우수 기업 발굴, 대출 심사 시 평판조회, 대출 받은 기업 사후관리 등을 위해 **통합지원기관**[13]**,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력**이 가능하다. 가령, 통합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17개 시·도 권역별로 1개소씩 선정·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 지원,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확산, 상시 컨설팅 제공, 각종 행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협동조합은 설립인가 지원, 설립 희망자 교육 등을 수행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통합지원기관과 협력하면 우수 조합원 확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대출이 필요한 기업을 추천하거나 기업 심사 시 평판정보를 제공한다면 위험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매년 사업보고서를 취합 및 검토하면서 기업 현황을 적시에 공유하고, 기업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기업에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규모가 있는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자산을 형성해야 한다. 소비자생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수많은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가령, 한살림연합은 73만명이상의 소비자조합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현재는 25개 조합으로 구성되며 5만여 조합원, 출자금 133억 원, 400억 원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사 34명, 한의사 27명, 치과의사 19명, 간호사 64명, 간호조무사 139명, 요양보호사 207명, 장애인활동지원사 271명 등 총 1,023명을 고용하고 있다. 참고로 캐나다 버진그린신협은 전체 협동조합운동의 일부라고 보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협동조합간 협동에서 재정담당기구의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협동조합협의회가 적극 지원했고, 예대율 9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해 협동조합협의회가 관리하는 여러 보증기금대출 프로그램에서 대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었다.[14]

4) 그린사회(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15]

기후위기란 이윤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한 기업경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은 이윤이 아니라 이용이 목적인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회여야 한다. 독일은 전체 에너지의 26%를 재생에너지로부터 만들어내고 있다. 독일에너지 협동조합은 누적 1GW에 달하는

12) 한국사회혁신금융,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재단법인 밴드, 전국주민협동연합회 등 주요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들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다.

13) 전국통합지원기관협의체, 지역별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대부분의 모법인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다.

14) 구정옥, 캐나다 신협의 시장지위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고찰, 신협연구(제60호)

15) 강민수, 그린사회로의 대전환 사회적경제가 앞장서자('20.12.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390)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고 18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내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오래전부터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기업경영을 얘기해 왔다.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사회적 경제가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그 진정성을 알게 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결심하게 된다. 플라스틱 제로, 태양광 100만 가구 보급과 같은 공익적 캠페인을 통해 공동체를 위한 혁신과 변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본 조합을 비롯한 신협이 그린사회로의 대전환을 선도하는데 앞장서도록 한다.

4. 사회연대신협 성장방안

1) 초기 단계 : 사회적 경제, 거점신협 등과 협업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게 안정화

첫째, 거점별 지역신협과 협력을 통한 고객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연대신협이 전국에 수많은 지점을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10대 권역별로 주요한 거점 신협과 업무 제휴를 통해 여수신, 공제사업 등 조합원들이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공동 대출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둘째, 통합지원기관, 당사자 협의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으로부터 신규 인증을 받거나 당사자 협의체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본 조합을 추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조합원을 확대할 수 있다. 통합지원기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우수 기업을 추천하면 우대 금리, 한도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반면, 해당 기관은 사회연대신협에 기업 현황, 평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비대칭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당사자 협의체,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이 연대를 통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대출 수요를 검토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 신용대출이 많아지다 보면 대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보증에 기반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대손으로 인한 자기자본 확충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2) 성장 단계 : 고객 접점 확대, 기업 육성을 통한 금융서비스 강화

첫째, 특화 지점 설립을 통한 핵심 고객군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사회혁신파크, 소셜캠퍼스온, 헤이그라운드 등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 지점을 설립하여 고객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 소비자생협 매장,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병원 내 Shop-in-Shop을 운영하고, 내부 소통채널을 통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조합원을 유치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박람회, 프리마켓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행사에 이동 지점을 설치하여

금융상담을 통해 조합원을 확대한다. 가령, 캐나다 퀘벡 데자르뎅신협그룹은 2014년부터는 대학 인근에 청년층을 위한 복합점포도 운영하고 있다. '360d'라 부르는 복합점포에서는 졸업여행계획과 주택구매 등 청년층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주는 금융상담과 강좌를 제공한다. 지역 커뮤니티 역할도 겸하는 '360d'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90%가 넘을 정도로 지역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16)]

둘째, 거점신협과 공동으로 기업육성센터를 설립하고 사회적경제기업 및 종사자에 대해 상담 및 금융 교육, 경영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연대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캐나다 데자르뎅의 지역조합들은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문 공동점포'를 운영한다. 1998년 출발한 공동점포는 지역조합들이 사전에 합의한 분담률에 따라 재원·수익·비용 등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중소기업에 대출·외환·보험·연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대도시에서는 정보기술(IT)·유통·건설 등을 중심으로, 소도시에서는 농업·제조업·요식업 등을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지역산업 특화 영업도 한다.[17)]

셋째, 공공기관, 재단을 중심으로 예치금을 유치한다.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사회적기업진흥원, 자활복지개발원, 공공기업 등으로부터 사회적 경제 예산을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통합지원기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 재단, 공익재단, 노동조합 관련 재단에 경쟁력있는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거액 예금을 유치하도록 한다.

3) 안정화 단계 : 사업 다각화,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

첫째, **임팩트 투자, ESG 투자 등을 통한 수익을 다각화한다.** 소셜벤처,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펀드에 LP로 참여하여 임팩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ESG펀드, 그린펀드 등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수익을 다각화한다. 신협법 개정을 타법인 출자가 가능해지면, 이종간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등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타 신협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도 적극 추진한다.** 합병은 비용 절감, 서비스 범위 확대, 규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할 수 있다. 성공적인 합병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실직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조합원들에게 합병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알리며, 임직원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조합원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가령 캐나다 버진그린조합은 5차례 합병을 진행하면서 합병 전과 합병 후, 피합병조합의 조합원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일일이 편지를 보냈다. 또한, 합병 이후 확대된 지역에 실버타운아파트, 복지센터 등을 희사하여 합병 후 조합원 이탈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직장(병원, 기업) 신협 등을 인수함으로써 기업 임직원들에게 사회적 경제에

16) 구정옥, 캐나다 신협의 시장지위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고찰, 신협연구(제60호)
17) 구정옥, 캐나다 신협의 시장지위 및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고찰, 신협연구(제60호)

대한 참여를 확산시키고, 해당 기업의 계좌 유치 및 CSR 사업을 협력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집적되었거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의 신협을 인수한다면 사회적경제 클러스트를 조성해 나가는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셋째, **장기간 데이터 축적을 통한 위험관리체계 고도화를 해야 한다.** 신협중앙회 내부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대출 심사에 적용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수립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경영성과를 제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5. 사회적 은행으로서 사회연대신협의 역할

해외에는 네덜란드 트리오도스 뱅크, 캐나다 데자르뎅, 밴시티 신협, 이탈리아 방카에티카, 독일 GLS은행 등 사회적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금융기관이 있다. 이들은 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실물 경제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명하고 포용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유대 관계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들의 연합체인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는 2009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65개 사회적 은행이 가입했으며, 7,000만 명이 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아쉽게도 국내에는 GABV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없다.[18)]

코로나 19 이후에 사회적 금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최근 설립 인가를 준비 중인 사회연대신협이 사회적 경제 내 자본을 축적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민간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다. 사회연대신협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협동금융을 통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예금을 통해 사회적 경제인과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가치에 공감하는 시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신협으로 출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은행으로서 역할을 기대해본다.

---

18) [알면 the 이로운 금융] 29.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금융, 단체신협으로 시작하자(이로운넷, 21.5.28.)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880)